

# 자연순환농업 새길을 여는 전남 영광 지부

1일 100톤처리 규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공식 개최  
자원화시설 인근지역 친환경단지조성으로 이미지제고 노력



▲ 눈발이 휘날리는 날씨속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시작을 알리는 첫삽뜨기 행사모습. 사진 좌측부터 홍경희 군의원, 김봉환 군의원, 농업기술센터 김장욱 소장, 영광축협 구희우 조합장, 종돈사업소 서동일 소장, 영광군의회 이장섭 의장, 대한양돈협회 한용석 영광지부장,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이낙연 국회의원, 영광군수대행 신창섭 부군수, 유병남 부의장, 전남도청 김종기 축정과장

한·미 FTA 체결, 한·EU FTA 추진, 미국산 쇠고기 국내 수입 등 대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사료값 상승으로 양돈농가의 입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움속에 양돈인 스스로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액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분뇨처리문제는 물론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상생의 길을 찾고 있는 지부가 있다. 이에 지난 12월 4일 영광지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공식 현장을 찾아가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았다.

글·사진 - 박기진



▶ 영광지부는 지역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쌀전업농 등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2007년도부터 자연순환 벼농사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김동환 회장이 자연순환 벼농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의 영광을 안은 범성덕흥단지, 염산 상계단지에 대해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 양돈협회 주도의 공동자원화시설

영광지부(지부장 한용석)는 지난 12월4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에서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이낙연 국회의원, 신창섭 영광군수대행 부군수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공식 및 자연순환 벼농사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기공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만들어 경종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지부는 지속적인 자연순환농업으로 가기 위해 2006년 11월에 현재의 축분액비 유통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행정, 양돈협회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낙연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으로 영광군이 2007년 1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이번 기공식은 생산자 단체인 양돈협회가 주도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의 기공식은 양돈산업 주체자로서의 희망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환 회장은 “가축분뇨 자원화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고 나아가 유기적인 농산물을 생산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오늘 기공식 행사를 발판삼아 가축분뇨가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자연순환농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친환경단지조성으로 액비의 이미지 제고 기대

이번에 기공되는 가축분뇨자원화공동시설은 국비 7억5천만원, 지방비 7억5천만원, 용자 10억원 등 총비용 25억원이 투입되며, 대지 2,998.80㎡, 건평 1,146.42㎡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1일 처리능력 100톤의 규모로 지어진다. 또한 자원화시설 주변 13,355.432㎡에는 시범포 및 생태공원 등 친환경단지가 조성되어진다.

시범포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공동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이용해 농작물을 시범재배할 뿐 아니라 잔디공원 조성과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근주민들의 학습 및 관광단지로서의 발전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단지조성은 액비에 대한 경종농가나 시민들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광지부 액비유통센터는 전라남도의 적극적 지원으로 21톤 액비 유통 차량을 추가확보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액비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냄새없는 친근한 액비생산제조공법 선정

영광지부는 농림부에서 추천한 10개 업체의 액비생산제조공법을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방문조사하여 그 중 3개공법을 선정하고 학계 등 전문가의 공법심의를 거쳐 영광지역실정에 맞는 ‘고온호기성발효공법’으로 최종선정하는 한편, 현부지를 선정하고 지난 10월에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근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들과 충북 진천과 전북 순창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제조공법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부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맞춤형 액비공급위한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영광지부는 액비유통센터 안에 팀장 1명(박선표 팀장), 차량기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유통팀은 분뇨 전문가로 구성되어 균일하고 효과적인 액비 살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액비를 충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차량 고압살포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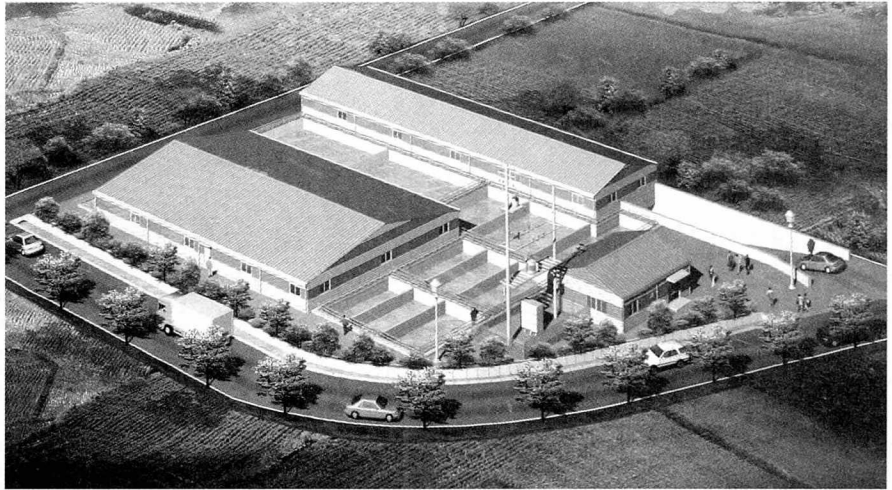
탑재한 5톤 2대, 트랙터 견인 살포기 8대(5톤 4대, 4톤 4대, 2톤 1대), 20톤짜리 바큇카 1대와 15톤 고압살포기 1대, 트랙터 1대, 호스 살포기 2대, 21톤 규모의 액비저장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광지부는 전문화된 액비유통팀의 운영으로 경종농가가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살포를 신청하면 유통팀이 실사를 통해 현장을 살펴보고, 액비살포가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시비처방서를 기초하여 적절한 설비와 차량을 이용해 분뇨를 살포한다. 살포비용으로 탈취제 첨가시 8,000원, 미첨가시 7,000원을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종농가에는 무료로 액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회의원과 이동권 도의원의 노력으로 전라남도의 재량사업비 1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유통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21톤 액비 유통 차량의 추가확보로 영광지부 액비유통센터는 체계적인 살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석 영광지부장은 “영광이 그동안 자연순환농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도의원, 축협, 농정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가축분뇨 자원



▶ 가축분뇨자원화공동시설 주변에는 시범포 뿐 아니라 잔디공원조성과 생태공원조성으로 인근주민들의 학습 및 관광단지로서의 발전계획도 가지고 있다.



화의 성공엔 유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상생의 길

영광지부는 지역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쌀전업농 등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2007년도부터 ‘자연순환 벼농사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 12월 4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기공식과 함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경진대회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하여 벼농사를 지은 38농가, 8개단지 50ha에 대해서 액비사용, 친환경인증, 병해충발생, 도복, 미질분석 등을 2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이중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5개단지가 시상을 하였으며 대회 시상금 1,000만원은 영광지부에서 부담하였다.

한용석 지부장은 “경종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가축분뇨가 더 이상 폐수가 아니라 농경지에 환원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진대회가 경종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

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액비’는 하늘이 내려준 큰 ‘선물’

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되면 양돈농가에서 만들어지는 액비가 자원화시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액비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냄새와 품질문제가 해결될 전망으로 고품질의 균일화된 액비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설치되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양질의 액비가 경종농가에 공급된다면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경종농가에서는 화학비료에 들어가는 영농비용 절감과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영광지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공식을 바라보며 한용석 지부장을 비롯한 영광 양돈인들의 든든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우리 양돈산업의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양돈**